

주간 Top Picks 26.08.31

26.08.3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AI 인프라·메모리 중심, 실적 상회 패턴 반복
- 밸류 할인 종목 다수, 설비투자 확대는 공통 부담
- 방산·금·통신 분산, 매크로 민감도 낮춰

#	티커	기업명	1W%	1M%	6M%	1Y%	코멘트
1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	13.3	126.0	683.9	AI 메모리 최대 수혜주, 마진 정상화 시점 주목
2	NEM	뉴몬트	-2.9	36.6	-0.6	72.0	저비용은 일회성, 주가는 금값 먼저 반영하며 약세
3	MSFT	마이크로소프트	5.4	10.5	28.9	1.4	마진은 계속 약해도 성장의 질이 충분히 상쇄
4	RTX	RTX	1.2	-1.6	-0.2	33.5	양 사업 동시 확장, 하반기 감속폭이 프리미엄 유지 관건
5	LMT	록히드 마틴	-0.1	-3.2	-16.7	23.8	마진·현금·RMS 반전에 가이드선 상향, 설비투자 변수
6	NVDA	엔비디아	4.3	8.4	19.2	24.9	단기 마진 압박 신호, 상향 유지하되 신중
7	BAC	뱅크오브아메리카	-0.0	0.6	25.1	22.8	네 부문 균형 성장으로 운영효율성 개선 본격화
8	TMUS	티모바일	-0.7	5.0	-16.1	-28.0	마진·현금흐름 개선 확인, 가입자 성장 둔화가 포인트
9	TMO	테르모 피셔 사이언티픽	-1.0	8.3	22.3	26.3	부진 회복하며 전 부문 동시 호조, 재평가 여력
10	AVGO	브로드컴	2.8	-5.3	15.7	24.0	성장성 확실하나 마진·실행난 악화는 별개

주: 음영은 신규 편입 종목

기준일: 26.08.31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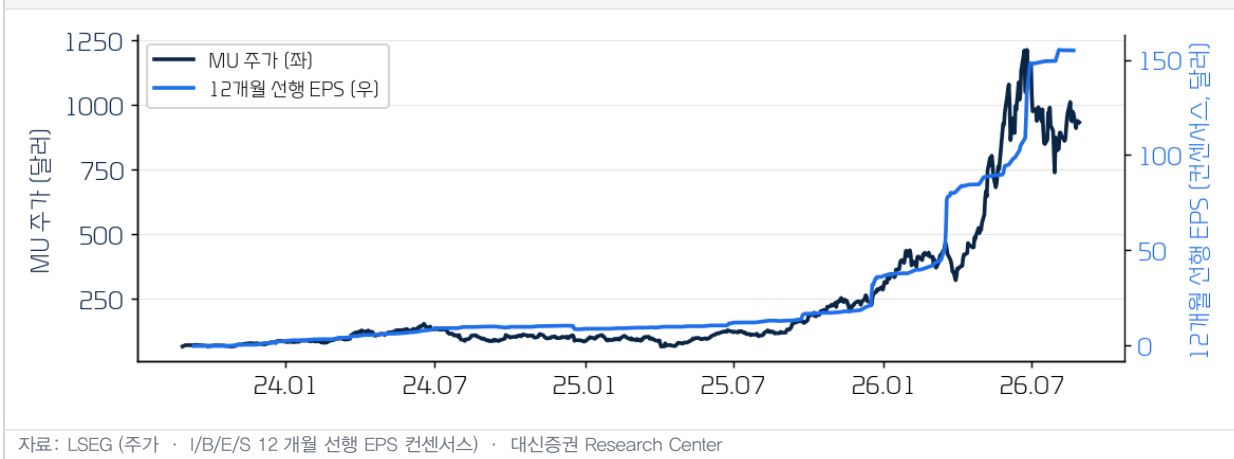
이번 주 픽 10 개를 관통하는 축은 AI 투자 사이클이다. 메모리(MU), GPU·ASIC(NVDA, AVGO), 클라우드(MSFT)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직전 분기 실적이 우리 모델의 예측 상단을 웃돈 과소추정 사례가 유독 많았다는 점이다. MU, MSFT, RTX, NVDA, TMO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고, 방향은 맞았지만 폭을 낮게 잡았다는 공통 오차가 확인된다. 여기에 방산(RTX, LMT), 금(NEM), 대형은행(BAC), 통신(TMUS), 생명과학 장비(TMO)를 더해 AI 익스포저를 과도하게 몰아넣지 않고 매크로 민감도가 서로 다른 섹터로 분산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MU·NVDA·TMUS·TMO 처럼 펀더멘털이 개선되는데도 12 개월 선행 PER이 5 년 평균을 밑도는 종목이 다수라, 이번 주 픽은 성장과 저평가가 동시에 확인되는 구간에 집중한 결과다.

리스크 요인

픽 다수에서 설비투자 확대와 마진 정점 논쟁이 동시에 걸린다. MU는 FY27 설비투자가 400 억 달러 이상으로 늘고 4 분기 매출총이익률 84.9%가 공급 증가 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을 회사 스스로 인정했고, NVDA와 AVGO도 3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언스를 나란히 하향하며 메모리 원가와 시스템·랙 단위 판매 믹스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MSFT 역시 설비투자가 FY27 1,750 억 달러로 확대되는 가운데 총이익률이 7 분기 연속 내려오는 중이다. AI 관련 픽들이 이 국면에서 동시에 마진 하방 압력을 받는다면 개별 종목 이슈가 아니라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번질 수 있어, 다음 실적 시즌에서 마진 가이드언스가 실제로 어디서 바닥을 찍는지가 핵심 변수다.

1. MU (반도체) — 혁신도 높음

MU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마이크론은 D 램·낸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로,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몰리면서 실적이 분기마다 가속하고 있다. FY26 3 분기 매출은 415 억 달러였고 4 분기 가이던스는 500 억 달러로 한 분기 만에 또 뛴다. 직전 3 분기 예측은 우리 모델 기준 예상 하회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예측 상단의 두 배를 웃돌아, 방향은 맞았고 폭을 크게 낮게 잡은 과소추정이었다. 이런 이익 레벨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보면 12 개월 선행 PER 9.9 배는 상당한 할인이다. 다만 4 분기 매출총이익률 84.9%는 D 램 가격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믹스에 좌우되는 단일 분기 수치이며, 회사도 공급이 늘면 수렴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수준을 대표 마진으로 못 박기는 이르다.

투자 포인트

- 데이터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653% 늘고 전 사업부가 250~650% 성장하며 수요가 모바일·자동차로도 번지고 있다.
- 전략적 고객사와 220 억 달러 규모 현금 예치·약정을 확보해 사이클 기업에서 장기계약 기반 수익 구조로 넘어가려는 시도가 보인다.
- HBM4 를 리드 고객에 양산 출하하기 시작했고 차세대 HBM4E 는 2027 년 양산을 목표로 로드맵이 2 년 이상 앞서 있다.
- 현금 302 억 달러에 총부채 57 억 달러로 순현금 구조를 유지하며 조정 잉여현금흐름 183 억 달러를 확보했다.

모니터링

- 84.9% 마진은 공급 증가 시 수렴할 수 있다고 회사가 직접 언급한 만큼, 다음 분기 실제 착지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 매출채권이 전분기 대비 79% 급증해 분기 매출의 75% 수준에 달한 점은 수금 지연이나 채널 재고 누적 신호일 수 있다.

2. NEM (금광) — 확신도 높음

NEM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뉴몬트는 세계 최대 금광 회사 가운데 하나로, 실적이 금 가격과 채굴 원가에 직접 연동된다. 2분기 예측은 우리 모델 기준 예상에 부합했는데, 금 가격 4,200 달러 이상 유지와 카디아 광산의 정상 가동이라는 핵심 전제가 그대로 실현된 결과다. 2분기 부산물 기준 채굴원가(AISC)는 온스당 1,621 달러로, 1분기의 1,029 달러(일회성 화재가 반영된 수치)에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연간 누계 1,321 달러는 연간 가이드런스 1,680 달러를 밑돌지만 회사는 이미 3분기 추가 비용 상승을 예고했다. 주가가 최근 3개월간 21.5% 조정받으며 금 가격 하락을 상당 부분 먼저 반영한 상태에서, 17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진입 시점으로서 매력적이다.

투자 포인트

- 2024년 2월 이후 발행주식의 약 9%를 소각했고 직전 실적 발표 이후에도 17억 달러를 추가 매입해 순현금 34억 달러 기반의 환원 강도가 역대급이다.
- 상반기 생산이 저점을 지나 하반기 생산 비중이 51%로 몰려 있고 아하포 노스 광산의 상업 생산 선언이 예정돼 있다.
- 레드 크리스 블록케이블 프로젝트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환경영향평가와 광업법 승인을 통과해 최종 투자 결정 요건을 갖췄다.
- 12개월 선행 PER 9.5 배는 5년 평균 16.1 배 대비 41% 낮아, 금 가격이 회복되면 이익 레버리지가 비선형으로 커질 수 있다.

모니터링

- 경영진이 3분기 비용 추가 상승을 공식 예고했다 — 유지보수 설비투자, 유가, 금값 연동 로열티가 동시에 작용할 전망이다.
- 금 가격 하락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2분기 온스당 486 달러 하락만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16%, 잉여현금흐름이 30% 줄었다.

3. MSFT (소프트웨어) — 확산도 중간

MSFT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애저)와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양대 축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 사이클에서는 AI 기능 유료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붙었다. 4분기 예측은 우리 모델 기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실제 매출이 예측 상단을 25억 달러 웃돈 과소추정이었다 — 애저 성장 가속을 낮게 잡은 게 오차의 핵심이었다. 애저 성장률이 40%에서 43%로 재가속했고, AI 비서 서비스 코파일럿의 유료 시트는 2,000만에서 3,000만으로 늘었다. 12개월 선행 PER 21.2배는 5년 평균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 컨센서스가 상향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투자 포인트

- 애저가 43% 성장하며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경영진은 FY27 상반기에 추가 가속을 언급했다.
- 수주 후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계약 잔고(잔여 이행의무)가 6,780억 달러(전년 대비 84%)로 늘어 FY27~28 매출 가시성을 뒷받침한다.
- 코파일럿 유료 시트가 3,000만을 넘고 관련 매출도 전분기 대비 60% 이상 가속해, AI 수익화가 시범 단계를 지나 상업적 규모로 들어섰다.
- 영업현금흐름이 554억 달러(전년 대비 30%)로 늘어 대규모 투자 속에서도 현금창출력이 흔들리지 않았다.

모니터링

- 매출총이익률이 67.2%로 7분기 연속 내려왔다. AI 인프라 감가상각과 전력비용이 매출원가에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중이다.
- 1분기(FY27) 설비투자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고돼 있어 잉여현금흐름이 추가로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

4. RTX (방산·항공) — 확신도 중간

RTX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는 미사일 등 방산 장비와 항공기 엔진·부품을 함께 만드는 회사로, 방산 재비축 수요와 상업항공 부품 교체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국면의 수혜주다. 2분기 예측은 예상 하회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매출과 조정 EPS가 각각 예측 상단을 6.5%, 8.6% 웃돈 과소추정이었다. 우리 모델은 유기적 성장률을 7~9%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16%였다. 백로그가 2,890억 달러에 달해 다년간 매출 가시성을 담보하지만, 12개월 선행 PER 26.8배는 5년 평균 대비 33% 비싼 수준이라 이 종목에서 밸류에이션은 유일하게 약한 축이다.

투자 포인트

- 레이시온 부문 매출이 82.7억 달러(전년 대비 18%)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패트리엇·스탠다드 미사일 등 물량 확대로 조정 영업이익률이 12.6%까지 개선됐다.
- 백로그가 2,890억 달러(전년 대비 22%)로 늘었는데 상업 1,700억 달러, 방산 1,190억 달러로 특정 프로그램에 쏠리지 않은 분산 구조다.
- 상업항공 애프터마켓과 신규 항공기 부품(OE) 매출이 각각 25%, 26% 늘며 항공기 엔진 지상 대기 건수도 정점 대비 40% 줄어 정비 사이클이 정상화되고 있다.
- FY26 가이드언스를 다섯 분기 연속 상향했고 12분기 연속 EPS가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체질을 보여준다.

모니터링

- 상반기 유기적 성장률이 10%·16%로 연간 가이드언스 8~9%를 크게 웃돌아, 하반기는 3~5%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산술적으로 예상된다. 시장이 상반기 속도를 그대로 연장해서 기대할 경우 실망 요인이 될 수 있다.
- P&W 상업 신규엔진 매출이 전년 대비 -8%로, 경영진은 대형 엔진 믹스 역풍이 여러 분기 이어질 구조적 요인이라고 인정했다.

5. LMT (방산) — 확신도 중간

LMT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록히드마틴은 미사일방어체계와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는 방산 대표주로, 이번 분기 들어 우리 투자 견해를 10 분기 만에 중립에서 강제로 올렸다. 2 분기 예측은 예상 하회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 매출과 EPS 가 컨센서스를 각각 3.7%, 10.4% 웃돌아 방향 판단 자체가 빗나갔다. 1 분기에 불거졌던 마진 하락, 잉여현금흐름 부진, 미사일방어(RMS) 부문 역성장이라는 세 가지 우려가 한 분기 만에 모두 반전됐고, 수주잔고 2,300 억 달러에는 7 월 새로 부여된 586 억 달러 규모 패트리엇 계약이 아직 반영조차 안 됐다. 다만 설비투자 가이던스 하향이 이번 잉여현금흐름 상향의 재원이 된 구조라, 이것이 지출 효율화인지 다음 회계연도로의 단순 이연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투자 포인트

- 미사일·화력통제(MFC) 부문 매출이 41 억 달러(전년 대비 19%)로 패트리엇·사드 물량 확대가 견인했고 마진도 14.5%로 포트폴리오 내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 수주잔고가 2,300 억 달러로 사상 최대인 데다 7 월 부여된 586 억 달러 규모 패트리엇 계약이 아직 집계에 안 잡혀 있다.
- 잉여현금흐름이 1 분기 -2.9 억 달러에서 2 분기 29 억 달러로 전환됐고, FY26 가이던스는 전 항목 상향됐다.

모니터링

- 설비투자 가이던스 하향(25~28 억 → 20~24 억 달러)이 잉여현금흐름 상향의 재원인데, 80~90 억 달러 규모 다년 탄약 설비 투자 약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자사주 매입이 1·2 분기 연속 0 으로 집계돼 재량적 환원 재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6. NVDA (반도체) — 확신도 중간

NVDA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엔비디아는 AI 학습·추론용 GPU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회사다. 이번에는 확신도를 직전 분기 높음에서 중간으로 한 단계 낮춰 유지한다. 2분기(FY27) 예측은 예상치 상회 판정으로 매출·EPS 모두 예측 상단을 넘었는데, 가이던스 대비 3~5% 초과라는 우리 논리 자체는 맞았지만 실제 초과폭 5.7%가 예상보다 컸던 과소추정이다. 매출은 962억 달러(전년 대비 106%)였고 3분기 가이던스는 1,080억 달러, 최고재무책임자는 FY28에 약 70% 성장이라는 예비 전망까지 제시해 수요 가시성이 2028년까지 늘었다. 다만 3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74.0%로 1.0%포인트 낮아지고 최고재무책임자가 메모리 가격과 부품 원가를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잉여현금흐름도 486억 달러에서 213억 달러로 줄어 확신도를 중간에 묶어둔다.

투자 포인트

- 데이터센터 매출이 890억 달러(전년 대비 117%)로 10분기 연속 순차 성장했고, 3분기 가이던스 1,080억 달러도 컨센서스를 3.7% 웃돈다.
- 아마존웹서비스와 2027~2028년 200만 개 GPU 추가 배치를 논의 중이고 미국 정부용 10만 개 GPU 보안 인프라도 발표돼 수요 가시성이 길어졌다.
- 12개월 선행 PER이 19.1 배로 5년 평균 35.2 배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고, 최근 목표주가 리비전은 상향 5건에 하향은 없다.
- 매출이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는데 영업비용은 55% 느는 데 그쳐 영업이익률 66.2%가 유지되고 있다.

모니터링

- 3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74.0%로 하향됐고 회사가 메모리의 극심한 가격 여건과 부품 원가를 마진 훼손 요인으로 직접 지목한 점을 주시해야 한다.
- 잉여현금흐름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분기 주주환원 260억 달러가 이를 초과하는 구조다.

7. BAC (은행) — 확신도 중간

BAC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 대형 상업은행으로, 금리 환경과 대출·트레이딩 실적에 실적이 좌우된다. 최근 두 분기 예측은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자기검증 근거는 없지만, 순이자이익 저점 이후 8 분기 연속 EPS 가 늘어난 실적 꺾적 자체가 개선 추세를 뒷받침한다. 순이자이익 성장률 가이드스가 6~8% 범위의 상단으로 좁혀졌고, 효율성비율은 59%로 경영진의 장기 목표선인 60%를 처음 밑돌았다. 12개월 선행 PER 12.4 배는 5년 평균 대비 11% 비싼 수준이라 추가 배수 확장 여지는 크지 않고,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경우 100 베이스포인트당 순이자이익이 22 억 달러 줄어드는 민감도가 가장 큰 하방 변수다.

투자 포인트

- 순이자이익이 162 억 달러(전년 대비 9%)로 늘었는데 수익률 곡선 정상화, 대출 8% 성장(9 분기 연속 순차 증가), 고정금리 자산 재가격이 동시에 작용했다.
- 글로벌 마켓 매출이 80 억 달러(전년 대비 34%)로 늘며 주식 부문(70%)과 투자은행 수수료(50%)가 자본시장 부문 체급을 끌어올렸다.
- 효율성비율이 59%로 전년 63% 대비 400 베이스포인트 개선됐고, 매출 15% 성장이 비용 8% 증가를 크게 앞질렀다.
- 보통주자본비율 11.2%를 지키면서 분기 80 억 달러(배당 20 억·자사주 60 억)를 환원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TCE)은 17.0%다.

모니터링

- 금리가 100 베이스포인트 내려가면 순이자이익이 22 억 달러 줄어드는데, 전체 매출의 51%가 순이자이익에서 나온다.
- 신용카드 위험조정 마진이 7.1%→6.7%→6.5%로 여러 분기째 낮아지고 있고 카드 순상각률도 3.55%로 절대 수준이 여전히 높다.

8. TMUS (통신) — 확산도 중간

TMUS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T 모바일은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로, 유에스셀룰러 인수 이후 통합 비용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2분기 예측은 예상 하회 판정이었는데 실제로는 매출이 예측 하단을 소폭 밑돈 반면 EPS는 상단을 웃돈 혼재된 결과였다 — 장비 매출 약세를 낮게 반영하고 마진 반등 속도도 낮게 잡은 양방향 오차다. 영업이익률이 21.9%에서 24.1%로 220 베이스포인트 개선되며 통합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됐고, 잉여현금흐름 가이드선도 상향됐다. 다만 가입자 순증이 2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고 3분기 가이드선도 약 25만 명으로 추가 둔화가 예고돼 있어, 시장이 이익 서프라이즈보다 성장 둔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라 중간 확산도로 답는다.

투자 포인트

- 잉여현금흐름 가이드선이 184억~188억 달러로 상향됐고 상반기 누계 94억 달러로 이미 연간 상단의 50~51%를 확보했다.
- 영업이익률이 24.1%로 220 베이스포인트 회복됐고 조정 EBITDA는 95.4억 달러(전년 대비 11.7%)로 분기 사상 최고다.
- 후불 서비스 매출이 158.5억 달러(전년 대비 12.6%)로 업계 최고 성장률을 유지했고 가입자당 매출(ARPA)도 152.91달러(전년 대비 2%)로 늘었다.
- 12개월 선행 PER 15.3배는 5년 평균 22.6배 대비 31% 낮은 수준이고 분기 33억 달러 규모 환원도 계속되고 있다.

모니터링

- 후불 순증이 27.7만 명(전년 대비 -13%)으로 줄었고 3분기 가이드선도 약 25만 명이라, 하반기 가입자 성장 목표 달성 부담이 크다.
- 후불 해지율이 0.99%로 전년 0.92% 대비 높아져 경쟁 심화나 가격 인상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9. TMO (생명과학 장비) — 확신도 높음

TMO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서모피셔사이언티픽은 실험실 장비와 시약, 임상시험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명과학 도구 회사로, 이번 분기 들어 투자 견해를 강제로, 확신도를 높음으로 올렸다. 2분기 예측은 예상 하회 판정이었는데 실제 매출과 EPS가 각각 예측 상단을 3.4%, 4.0% 웃돈 과소추정으로, 유기적 성장률 5%와 조정 영업이익률 22.8% 확대를 낮게 잡은 게 오차 원인이었다. 네 개 사업부가 모두 6% 이상 성장한 것은 시계열상 처음이고, 1분기에 나타났던 유기적 성장 부진(약 1%)이 한 분기 만에 되돌려졌다. 12개월 선행 PER 21.8 배는 5년 평균 대비 13% 낮아 안전마진이 남아 있지만, 잉여현금흐름 진척률 개선은 아직 두 분기 데이터라 연간 궤적을 확정하기는 이르다.

투자 포인트

- 생명과학(12.6%), 실험제품·바이오(11.6%), 분석기기(6.9%), 특수진단(6.3%) 네 사업부가 동시에 6% 이상 성장한 건 시계열상 처음이다.
- 조정 영업이익률이 22.8%로 90 베이스포인트 확대됐고 영업이익 증가율(15.2%)이 매출 성장률(10.5%)을 앞질러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했다.
- 상반기 잉여현금흐름이 24.9 억 달러(전년 14.7 억 달러)로 늘어 연간 가이드언스 69~74 억 달러의 34~36%를 이미 확보했다.
- FY26 조정 EPS 가이드언스 중간값이 상향되며 컨센서스를 1.1% 웃돌았고 상반기 40 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도 진행됐다.

모니터링

- 연간 가이드언스는 유기적 성장률 3~4% 범위 상단 착지를 전제하지만 경영진은 3~4분기 성장을 평평한 흐름으로 제시했다. 하단으로 회귀하면 되돌림 폭이 커질 수 있다.
- 분기 설비투자가 4.5 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 늘었고 연간 순 설비투자도 19~21 억 달러 수준을 유지해 잉여현금흐름에 부담을 준다.

10. AVGO (반도체) — 혁신도 높음

AVGO 주가·12개월 선행 EPS



코멘트

브로드컴은 AI 전용 반도체(맞춤형 ASIC)와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함께 파는 회사로, 이번에도 강세 견해와 높은 혁신도를 다섯 분기째 유지한다. 최근 예측은 평가가 완료된 건이 없어 자기검증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AI 반도체 매출이 108 억 달러(전년 대비 143%)였고 3 분기 가이던스는 160 억 달러로, FY26 약 560 억 달러 목표를 향한 산술적 경로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메타·엔트로픽·오픈 AI 가 기가와트 단위로 물량을 약정하며 수요 가시성이 2028 년까지 늘었지만, FY27 에 1,000 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려면 FY26 대비 79% 이상 성장해야 하고 회사 스스로도 실행 난이도가 임계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3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약 74%로 전분기 대비 310 베이시스포인트 낮아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투자 포인트

- AI 반도체 매출이 108 억 달러(전년 대비 143%)였고 3 분기 가이던스 160 억 달러로 FY26 약 560 억 달러 목표 경로가 구체화되고 있다.
- 메타 3 기가와트, 엔트로픽 5 기가와트, 오픈 AI 1.3 기가와트 등 고객별 약정이 구체화됐고 20 기가와트·350 억 달러 규모 별도 플랫폼(XPV)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외 자본까지 수요 기반이 넓어졌다.
- 잉여현금흐름이 103 억 달러로 매출의 46%에 달해 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2.3 억 달러에 그쳐 자본 경량 구조를 유지한다.
-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이 72 억 달러(전년 대비 9%)로, 브이엠웨어 인수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 유기적으로 재가속되고 있다.

모니터링

- FY27 1,000 억 달러 이상 목표는 FY26 대비 79% 이상 성장이 필요한데, 회사 스스로 실행 난이도가 임계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힌 점을 주시해야 한다.
- 3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약 74%로 310 베이시스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고됐고, 재고 회전일수도 68 일에서 86 일로 늘었다.

다음 주 관찰 포인트

- 9월 17일 FOMC 금리 결정과 이에 따른 BAC의 순이자이익 민감도 재점검
 - MU, AVGO 9월 실적에서 AI 반도체 수요 지속성과 마진 방향 확인
 - NVDA, MSFT의 설비투자 확대 폭과 잉여현금흐름 희석 정도 추적
 - NEM, LMT, RTX 등 10월 실적에서 비용·설비투자 가이드런스 재확인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